

가장 가보고 싶은 장성의 겨울 명소는?

황룡강변·장성호 수변길 등 6곳 대상 SNS 투표 이벤트



장성호 수변길

여기가 장성이야? 장성의 겨울 명소 가 눈길을 끈다.

장성군이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 겨울이라서 떠나기 좋은, 떠나야 하는 여행지로 손색이 없을 정도다.

장성군이 올린 '가보고 싶은 장성 명소'는 6곳.

우선, 황룡강변. 황룡강은 장성의 명소로 거둔다. 봄, 가을이면 강변을 따라 펼쳐진 꽃길을 걸으며 주변 풍광을 감상하거나 돛자리를 펴고 앉아 강바람을 느끼려는 지역민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겨울, 눈 내린 황룡강변도 얇게 얼어붙은 강변에 내려앉은 잔설 등으로 근사한 겨울 풍경을 만들었다. 그 위로 발자국을 찍어놓기라도 하면 '작품'이 될 듯하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 눈만 내리면 당장 가고 싶은 장성의 '핫한' 겨울 명소다.

장성호 수변길도 눈 내린 날, 한없이 걷고 싶을 만큼 좋다. 수변길의 매력은 숲과 호수의 정취를 동시에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점이다. 눈이 내린 날, 오전부터 서두르면 아무도 밟지 않는 눈 쌓인 수변데크를 걷는 고즈넉함을 만끽할 수 있다. 새벽녘 안개라도 피어오르면 몽환적인 분위기도 연출된다.



죽령산 편백숲

올 상반기 장성호 위를 지나는 156m 길이의 '출렁다리'까지 만들어지면 걷는 재미도 더해질 예정이다.

죽령산 편백숲은 푸름의 아름다움과 순백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국내 대표적 숲이다. 사시사철 푸른 편백나무 숲을 따라 뚫드득거리는 눈길을 걷는 재미는 아는 사람만 안다. 눈 내린 겨울 산사의 정취는 호젓함 이상이다. 백암산도 그렇다. 설화(雪花)가 피어난, 고요가 깃든 산사를 걷는 고즈넉함은 겨울이 아니면 느끼기 쉽지 않다.

홍길동 테마파크와 임권택 시네마테

크도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장성군도 이같은 점을 감안, 6곳을 대상으로 '가보고 싶은 명소'를 주제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28일까지 가보고 싶은 한 곳을 골라 댓글에 기재한 뒤 공유하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200명에게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의 구석구석을 찾아 멋진 겨울을 즐겨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군 귀농가구 3억7500만원 저리 융자

올 100세대 유치 각종 지원

화순군이 도시민 농촌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귀농가구 100세대 유치를 목표로 이주부터 정착까지 '풀' 서비스를 마련했다.

우선, 3억원의 농업창업자금과 7500만원의 주택구입 자금 융자 지원을 비롯, 귀농학교 운영, 소형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지원, 3~5개월간의 귀농연수,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등 귀농을 위해 이주한 뒤 주택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금

용기관과 연계, 저리로 7500만원까지 빌려주고 논·밭 등 토지를 구입하는데 3억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또 귀농 초보자의 농사를 돕기 위해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시설 재배를 위한 소형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지원비도 마련했다.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할 때까지 5개월간 귀농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마을 잔치, 동호회 활동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화순군은 이같은 정책 등으로 전년도 귀농학교 수료생 중 정착한 도시민들이 36%에 이른 것으로 집계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구충곤 군수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노력"

화순군이 운주사(사진)의 가치를 높여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구충곤 군수는 최근 도암면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운주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운주사는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선수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매력 있는 곳"이라며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는 운주사가 세계유산에 등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군수는 또 문화재청과 중앙부처 등을 통해 운주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올 383개 마을 CCTV 설치 마무리... '안전한 장성 만들기' 총력

장성군이 '안전한 장성 만들기'에 공을 쏟고 있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1년 전남지역 군 단위 최초로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방범·어린이 안전·용·재난 감시용 등 CCTV 616대를 381곳에 설치, 운영중이다.

장성군은 지난해 100개 자연마을에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나머지 383개 마을 임·출구에도 CCTV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또 올해 CCTV에 '인공지능 이상 음원 장비'를 설치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인공지능 이상 음원 장비는 비명이나 폭발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등이 들리

면 자동으로 통합관제센터에 경보를 울려주는 장비다.

인공지능 능력을 갖춰 구굴의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영상과 음원 데이터가 쌓일수록 사건·사고 대응능력이 높아진다.

장성군은 여기에 지역 336개 마을에 재난방송시스템을 설치하고 군청과 읍·면 사무소에 설치된 통합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이외 기존 가로등을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CCTV가 설치된 전 구역에 LED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사과' 문자·문양 새겨넣어 부가가치 높인다

글씨가 새겨진 장성 사과(사진)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사과에 글씨를 새겨넣은 이른바 '문자 사과'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과에 하트 모양이나 기업 로고, 합격 기원 문구 등을 새겨넣어 판매하겠다는 것으로, 맛 뿐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도 제

공해겠다는 게 장성군 구상이다.

장성군은 사과에 글씨나 모양을 새겨넣을 경우 사과 부가가치를 높여 주민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합격'이라고 쓰여진 사과를 수확능력시험 시기에 판매하거나 특정 기업체 이름이나 로고를 새긴 홍보용 사

과 판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성군은 글씨·문양 스티커 제작 등 관련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소포장재 개발 사업도 추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장성은 전남에서 가장 넓은 사과 재배지를 보유하고 있다. 상품성과 품질도 뛰어난 문자 사과 사업까지 병행할 경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장성군 생각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나 문자 사과 사업까지 병행할 경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장성군 생각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담양군 100원 택시 48개 마을로 확대

올해부터 운행기준 완화

올해부터 담양지역 48개 마을 주민들이 100원만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부터 농촌마을 주민들을 위한 행복택시 운행 기준을 완화, 12개 읍·면 48개 마을로 확대했다.

행복택시는 지난 2016년 27개 마을 246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한 뒤 지난해 36개 마을(403명)로 늘어났고 올해 48개 마을로 확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담양=정대근기자 jdg@

담양군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버스승강장과 마을회관 간 거리 기준을 기존 0.7km에서 0.5km로 완화했다.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마을회관부터 버스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경우 자동차가 없는 65세 이상 주민이면 행복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가까운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 소재지나 인근 전통시장까지는 1000원으로 주 1회 이용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마을주민과 택시운송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행복택시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매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거문도, 토지

- 여주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